

국어 움라우트 연구사

—동화주, 피동화주, 개재자음의 본질을 찾아서—

신 중 진*

1. 머리말

음운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공시론이나, 통시론이냐에 따라 중요한 견해 차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가령 A라는 음운현상이 공시론적인 현상으로 파악되면, 이 음운현상은 형태소 내부에서만뿐만 아니라 어간이나 어미가 규칙적인 교체를 보이는 형태소 경계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반면 B라는 음운현상이 통시론적인 현상으로 파악되면 이 현상은 형태소 내부에서만 인정되며, 형태소 경계의 경우 어간과 어미가 규칙적으로 교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국어의 음운현상 가운데 이상과 같은 점에서 가장 큰 견해차이를 보이는 것이 움라우트(Umlaut)이다. 움라우트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의 음가 변화 그리고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바, 그 시기와 함께 움라우트 발생 시기를 고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어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성립되고 이론적 틀이 도입되면서 움라우트에 대한 이상의 쟁점들은 꾸준히 연구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움라우트는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강사

공시적인 음운현상으로 이해되기도 했으나, 결국은 통시적인 음운현상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중세국어 시기에 이미 음라우트 현상이 발견된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나 ‘ㄱ, ㅏ’ 등이 단모음화를 겪은 18세기~19세기에야 비로소 음라우트가 실현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국어의 음라우트는 그 자체에도 많은 쟁점들을 지니고 있다. 즉 동화주, 피동화주, 개재자음이 그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 음가와 관련된 음라우트나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와 관련된 음라우트는 논외로 하고, 음라우트 실현에 직접 참여하는 동화주, 피동화주, 개재자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간의 연구성과를 개념별로 검토하는 데 있다. 2장에서는 동화주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 보고 그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여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 볼 것이다. 3장에서는 피동화주에 대해, 4장에서는 감히 ‘음라우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개재자음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고찰해 보고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볼 것이다. 5장은 맺음말로 삼는다.

2. 동화주에 대한 논의

연구논저	동화주에 대한 주요 내용	기존논의 비판 및 비고
이승녕(1935, 1940)	*동화주는 'i'와 'j'이다.	
김완진(1963)	*동화주 'i'는 순정의 'i'어야 한다.	*희미←호미<(호미<호미)
김완진(1971)	*김완진(1963)의 견해와 일치	
최명옥(1974)	*동화주인 /i/는 어원적일 것을 요구한다.	
최명옥(1980)	*동화주가 되지 못하는 '이'를 기저 형에 '의'로 표시할 필요 없다.	*김완진(1963/1971)을 비판함.
이승재(1980)	*i도 동화주가 될 수 있다.	
도수희(1981)	*충남방언을 통하여 보면 모든 전설모음이 동화주가 될 수 있다. *순행동화에 의한 음라우트의 예가 존재하는바, 선행음절의 전설모음이 동화주가 될 수 있다.	
기세관(1983)	*순정이 아닌 /i/가 동화주의 기능을 담당한다.	(사귀다>)사기다→새기다
최명옥(1989)	*음라우트의 동화주는 'i'나 'j'뿐이며 국어의 음라우트는 이들 동화주에 의한 역행동화만이 인정될 수 있다.	*도수희(1981)의 두 가지 주장, 즉 모든 전설모음은 동화주가 될 수 있다, 순행동화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비판함.

엄밀한 의미에서 음라우트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이승녕(1935) 이전에 외국인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이승녕(1935)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특히 이승녕(1940)에 와서는 '·'의 음가를 추정하면서 이승녕(1935)에서 언급한 음라우트에 대한 논의를 아주 활발하게 전개시키고 있다. 여기서 동화주에 관한 한, 현대국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음라우트의 동화주는 'i, j'임을 확실히 명시하고 있다.

김완진(1963)은 이승녕(1935, 1940)의 논의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좀더 세밀한 관찰의 결과, 동화주인 'i' 모음에 제약이 있음을 밝혔다. 즉 후행하는 'i'가 어원적으로 순정 'i'가 아닐 때에는 동화주(assimilateur)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논의를 더 진전시키지 못했으나 다시 김완진(1971)에 와서 그 이유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가령

(1) *회미←호미<호의<호미

(1)에서 *회미←호미가 불가능한데, 문제의 'i'가 본래 순정모음 'i'가 아닌 이중모음(의>의)이었던데 기인하는 것이지만, 공시론적 관점에서는 형태음소의 차이에 말미암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호미'의 '이'나 '도미'의 '이'나 음소면에서는 다같이 '이'로 실현되지만, 형태음소의 차원에서는 하나가 '의'가 되고 하나는 여전히 '이'로 유지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18세기나 19세기에 있어서의 이중모음 '의'가 현대국어에 있어서 단모음 '이'로의 결합적 발달(結合的 發達)에 의하여 표면상으로는 그 자취를 감춘 듯이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음소의 차원에서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명옥(1974)은 /i/의 역행동화가 비교적 자유로운 어휘형태소내에서도 어원적인 'i' 앞에서는 동화가 가능하지만 일차적인 변화를 입은 'i' 앞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완진(1963, 1971)의 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명옥(1980)에 와서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음라우트는 통시적 현상이므로 즉 음라우트를 비본래적인 'i'를 생성시키는 다른 규칙들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김완진(1963, 1971)처럼 형태음소 '의'는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김완진(1963, 1971)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의'가 '이'로 되는 규칙은 음라우트 규칙이 적용된 이후의 일이며, 따라서 이 규칙이 적용되던 시기에는 이미 형태소 내부에서 음라우트 규칙이 효

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역사적인 규칙 적용 순서를 고려할 때, 동화주가 되지 못하는 비본래적인 ‘이’를 기저형에 ‘의’로 표시할 필요 없다는 주장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오서는 방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방언 자료는 ‘i, j’가 아닌 전설모음도 음라우트의 동화주가 될 수 있다는 논의를 펴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승재(1980)은 동화주에 대한 논의의 또다른 출발점이 된다. 이승재(1980)에서는 구례지역어에 나타나는,

(2) 바꾼다[pak'unda](바꾼다), 배끼면[pɛk'ümən](바끼면)

(2)의 밑줄친 ‘배끼면[pɛk'ümən](바끼면)’의 예를 통해 전설모음 가운데 ‘ü’도 동화주가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¹⁾ 동일한 입장이 도수희(1981)에서도 보인다. 즉 음라우트의 개념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것이며, 한국어에 있어서도 방언에 따라서는 [-back]의 모음들이 비록 소극적일지 모르나 동화주로 행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i, j’ 이외에

(3) ɛ(e), ɸ(ɛ), ɔ(ö), ɰ(i)

(3)의 예들도 동화주 역할을 함을 주장한다. 이는 동화주의 자격을 넓힘으로써 이후 음라우트에 대한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도수희(1981)에서는 또한

(4) 치마→치매, 맹글다→맹길다, 기가막혀→기개매켜

(4)의 예에서 동화주 ‘이/에/애’에 의한 순행동화로서의 음라우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기개매켜’의 전반부는 순행동화로, 후반

1) 밑줄은 필자의 것. 이하 동일.

부는 역행동화로 성립하는 자못 기이한 음라우트형임을 특기하고 있다.

한편 기세관(1983)에서는 ‘위’와 ‘외’가 전남 북서부 방언에서 [i]로 실현될 때 형태음소로 다룰 수 없다고 함으로써 김완진(1963, 1971)의 형태음소 층위의 도입을 비판하고 있다. 이유로써 이 방언에서 이들은 가끔 음라우트의 동화주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가령

(5) 사귀다→새기다, 바뀐다→배끼다, 소위→쇠이

(5)와 같이 실현되는데, 이 때의 ‘i’는 형태음소론적 층위에서 일탈하여 음운론적 층위로 전위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음라우트에 대한 연구사를 총체적으로 고찰한 최명옥(1989)에서는 다음의 (6)과 같은 전제 아래에 도수희(1981)의 두가지 논의 즉 전설모음은 모두 동화주가 된다는 주장과 순행적 음라우트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아울러 음라우트의 동화주를 규정한다.

(6) “어떤 현상이 한 언어 또는 한 방언에서 그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현상이 해당 언어 또는 방언에서 일반적이어야 하며, 그 현상을 지배하는 어떤 제약조건이 명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약조건은 동일한 환경을 가진 많은 자료는 물론이고 다른 환경을 가진 많은 자료를 정밀하게 관찰함으로써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²⁾

도수희(1981)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비판 근거로서 우선 동일 지역에서 동화주 위치에 후설모음이 있으나 그 앞 음절이 전설모음화하는 예가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예컨대

(7) ㄱ. 배깁(바깁), 뽕가덩이(발가둥이), 재꾸(자꾸), 냉구먼(납기다), 미섭던지(무섭다)

ㄴ. 땀배(담배), 뽕맹이(방망이)

2) 이런 점에서 도수희(1980)은 논의에 유리한 자료만 관찰하고 관련되는 다른 환경의 많은 자료를 고려하지 못했다.

(7ㄱ)이 그러한 예들이다. 따라서 (7ㄴ)의 ‘땀배(담배), 뱅뱅이(방당이)’ 등과 함께 이들 예는 후행 음절의 모음에 의한 동화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7ㄱ, ㄴ)의 전설모음화를 서로 다른 음운론적 기제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7ㄱ)의 두 번째 음절의 후설모음이나 (7ㄴ)의 두 번째 음절의 전설모음이 그 앞 음절의 후설모음을 전설모음화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두 번째 음절이 전설모음이지만 (7)과 같은 현상을 보이지 않는 많은 예들이 있기 때문이다.

(8) 삼배(*쌔배), 장개(*쟁개), 어깨(*에깨)

즉 (8)의 어두 음절에서는 전설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7ㄱ)과 (7ㄴ)의 전설모음화는 후행 음절의 모음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명되어야 할 그 어떤 다른 음운론적 기제에 의한 것이다.³⁾

두 번째 주장에 대한 비판 근거는 우선 (4)에 제시된 ‘치마→치매, 멩글다→멩길다, 기가막혀→기개매켜’ 등의 자료만 한정하여 보면 후행 음절의 전설모음화는 선행 음절의 전설모음에 의한 것이지만,

(9) 부애(부화), 가매(가마), 장개(장가)

(9)처럼 선행 음절에 후설모음이 있을 때의 후행모음의 전설모음화를 고려하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전자의 예와 후자의 예는 편의상의 구별에 지나지 않으며, 실상은 동일한 기제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최명옥(1989)에서는 어떤 음운론적 기제에 의해 이들이 설명될 수 있는지까지는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은 이들이 일

3) 현재로서는 규칙화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전설모음화가 일어난 (7ㄴ)의 예들이 후행 음절에 있는 전설모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의 유추 작용에 따른 결과들이라고 보고 있다. 움라우트 규칙이 적용되는 과정에 혹은 움라우트 규칙이 사라진 이후에 작용했을 복잡한 유추의 양상이 앞으로 고찰되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도수희(1981)은 움라우트의 동화주에 대한 논의를 연구사적으로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였다. 즉 움라우트는 일종의 전설모음화로 파악되는데, 전설모음에 의한 비전설모음 즉 후설모음의 전설모음화가 움라우트인 것이다. 국어의 움라우트에 대한 논의에서 전설모음 가운데 특별히 'i, j'만 동화주로 묶을 자연성은 없어 보인다고 비판함으로써, 'i, j' 이외의 전설모음에 의한 움라우트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성립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i, j'는 [+high, -back]에 의해 묶일 수 있는바, 자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 피동화주에 대한 논의

연구논저	피동화주에 대한 주요 내용	기존논의 비판 및 비교
이승녕(1935, 1940)	*피동화주는 후설모음 중 ‘아, 어, 오’에 한정된다.	
정인승(1937)	*피동화주로는 모든 후설모음과 ‘j’가 선행하는 모든 후설모음이 될 수 있다.	
김완진(1963)	*정인승(1937)과 일치. *피동화주가 ‘u, i’일 때는 음라우트가 약화된다. *피동화주를 포함한 음절의 두음이 t, n이면 모음간 r음이 제약조건이 되지 못한다.	대리다[tærida](다리다), 대리[teri](다리).
이병근(1969)	*음라우트는 운소적 제약을 받는다.	
최명옥(1980)	*피동화주의 성조에 따라 음라우트의 가부가 결정된다.	
서정목(1981)	*피동화주를 포함하는 음절이 저조이고 장음을 가질 때 음라우트가 불가능하다.	
백두현(1982)	*체인과 주격 ‘-이’가 결합할 때 동화주 i의 선행음절이 고조가 아닌 저조가 음라우트를 받아 들이는 다수의 예가 있다. *고조인 어사도 음라우트가 되지 못하는 예가 발견된다.	*서정목(1981)을 비판함-저장조를 가진 체인들이 음라우트를 실현시키는 사실은 음라우트와 특정 성조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한다.
김영배(1985)	*정인승(1937), 김완진(1963)과 일치.	
최명옥(1989)	*김완진(1963)의 견해와 일치.	

이승녕(1935, 1940)은 ‘아, 어, 오’만이 피동화주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 어, 오’ 모음이 ‘i’로부터 최대의 거리에 있기 때문인데, 조음노력의 절감을 위하여 음라우트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

이다. 한편 정인승(1937)은 피동화주가 모든 후설모음과 ‘j’를 선행시키는 모든 후설모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피동화주가 될 수 있는 모음은 [+후설성]을 지니는 모든 모음이라는 견해이다.

김완진(1963)은 정인승(1938)과 견해가 일치하나 피동화주가 ‘T(u), -(i)’일 때는 음라우트가 약화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령

(10) 느끼다, 느리다, 후미지다, 굽하다, 웃기다

(10)의 예들은 음라우트를 겪지 않는다. 이 사실은 피동화음이 ‘T(u), -(i)’일 때는 음라우트가 부진하다는 점과 마침 ‘위, 의’가 아직도 이중모음으로서 음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연상하면 흥미진진함을 알 수 있다. 즉 피동화 대상음이 그에 대립하는 전설모음을 가질 때에는(오:외, 아:애 등) 음라우트 작용이 성립하면서, 해당 전설모음이 새로 생성된 것이 없을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함은 시기적으로 이중모음들의 단모음화에 계기하여 이 동화작용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60년대말, 70년대에는 방언자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 연구 결과가 활발하게 보고되었다. 방언자료에 나타난 음라우트 실현형과 비실현형의 음운론적 제약도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방언자료를 근거로 음라우트의 피동화주에 대한 최초의 음운론적 제약을 지적한 이병근(1969)가 돋보인다. 이병근(1969)는 전반적으로 경기지역어는 음라우트 현상이 딴 방언보다 약하다고 보고하고, 실현되지 않는 경우 가운데에는 ‘-V:(C)i-’ 환경이 있다고 말한다. 즉 피동화주가 비분절음자질인 장음을 가지면 음라우트가 불가능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음라우트에 대한 비분절음적 자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최명옥(1980)에서 예와 함께 언급되는데, 최명옥(1980)은 경주 방언을 연구하면서 가령

(11) 잡히(caphi‘i-)→*잼히(cE‘phi-)

(11)의 예에 주목하여 ‘잡히-’의 경우 경주 방언에서는 ‘caphi‘i-’로만

실현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피동화주가 고조이면 음라우트가 실현되고, 피동화주가 저조이면 음라우트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⁴⁾

서정목(1981)도 동일한 목적에서 음라우트를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피동화주와 관련해서 다음의 흥미있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 (12) ㄱ. 반영(反映) : 어리(LH)-
 ㄴ. 어림(幼) : 어리→에리(HL)-

즉 서정목(1980)은 ‘반영(反映)’을 의미하는 ‘어리(LH)-’와 ‘어림(幼)’를 의미하는 ‘에리(HL)-’를 주목한다. 두 ‘어리-’ 중 하나는 음라우트를 경험하여 ‘에리-’로 실현되고, 다른 하나는 음라우트를 실현시키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려면 결국 두 어사의 성조 차이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어림(幼)’을 의미하는 ‘에리-’는 첫음절이 고조임에 반하여 음라우트 실현이 제약되는 ‘반영(反映)’을 의미하는 ‘어리-’는 첫음절의 ‘어’가 저조이면서 장음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리-’ 어간동사의 경우 피동화 음절의 성조가 고조인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음라우트가 실현되는데 반하여, ‘-리-’ 앞의 피동화 음절의 성조가 저조이면서 장음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병근(1969), 최명옥(1980), 서정목(1981) 등에서 논의되었던 음라우트에 대한 비분절음적 제약에 대한 논의는 백두현(1982)에 의해 비판받는다.

- (13) ㄱ. 점(占) : *쩨의 맞다.
 ㄴ. 금(金) : *김의 난다.

(13') 금(線) : 벽에 김이 잤다.

(13ㄱ. ㄴ)에서 ‘점(占)’과 ‘금(金)’은 고조이지만 음라우트를 의미하는

4) 그러나 또 다른 동남 방언 혹은 서남 방언에서는 ‘cE’phi-’로 나타나기도 함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13')에서 '금(緡)'은 저조이면서도 움라우트를 받아 들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명옥(1980), 서정목(1981)에서 논의된 동화주의 선행 음절이고조일 때 움라우트가 가장 잘 실현된다는 가설이 성주, 금릉 지역어에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저조가 움라우트를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 장음을 가진 체언도 주격 '-이'와 결합할 때 움라우트가 되는 어사들이 두 지역어에서 발견된다고 말한다.

(14) 감:+이→개:미(柿), 강:+이→개:이(江)

(14)가 그러한 예로서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두 지역어가 저조와 마찬가지로 저장조를 가진 어사들도 움라우트를 실현시키고 있으므로 피동화 음절의 성조가 움라우트의 제약조건이 된다는 가설의 일반성은 약화된다. 즉 고조, 저조, 저장조가 모두 움라우트를 받아 들이므로 특정 성조가 움라우트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편 김영배(1985)는 각 지역 방언의 조사에서는 /아, 어, 오, 우, 으/가 모두 피동화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모음체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으나 [+back, -high]의 /아, 어, 오/만이 아니라 [+back] 자질의 모음이면 모두 동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아, 어, 오/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피동화주일 때보다 동화가 더 잘 된다고 말한다.

최명옥(1989)는 움라우트가 일어날 환경이 적합할 때, 국어를 구성하는 대방언권 내의 여러 방언이 피동화주가 '아, 어, 오'인 경우에 비하여 '우, 으'인 경우에 움라우트의 정도가 꽤 약화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후설모음이 피동화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명시한다.

요컨대 움라우트가 실현될 수 있는 피동화주로 일단 모든 후설모음이 다 가능한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병근(1969), 최명옥(1980), 서정목(1981), 백두현(1982)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움라우트의 운소적 제약 자체에 있다. 즉 동화가 운소적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는가? 움라우트의 전형적인 언어인 독일어에서도 이런 제약은 없다. 그리고 국어의 어떤 동화 작용도 운소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음라우트의 운소적 제약에 대한 일련의 발견들은 우연한 경향이거나 극히 일부의 예를 통한 관찰에서 오는 결과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4. 개재자음에 대한 논의

연구논저	개재자음에 대한 주요 내용	기존논의 비판 및 비교
이승녕(1935, 1940)	*'개야미' 등처럼 '중개자음(中介子音)'이 없어도 '아-이, 어-이, 오-이' 모음 연쇄에서 발견되는 선행 음절의 음라우트는 가능하다. *음라우트를 방해하는 개재자음은 처음이다.	'ㅂ, ㅃ, ㅅ, ㅆ, ㅈ, ㅉ' 등 주로 순음, 구개음이어야 가능한함. 이들 자음이 변자음으로 묶일 수 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아직 보이지 않음.
김완진(1963)	*모음간의 's, r, c, ch, c', n' 등 및 이 음운들을 포함하는 중자음은 이 현상을 방해한다. *피동화음을 포함한 음절의 두음이 't'나 'n'이면 모음간 'r'음이 transichtbar하여진다.	
김완진(1971)	*음라우트와 자음간의 동화는 같은 동화 작용이지만 그들 사이에는 적용상의 순서가 존재한다.	
이병근(1970, 1971)	*공시적으로나 통시적으로나 계속적 자질(continuant feature)에 의한 음운론적 제약이 무엇보다도 강력히 작용한다. 'ㅅ, ㅆ, ㅈ, ㅉ, ㄹ' 등은 계속적 자질을 공통자질로 가지고 있다.	
최명옥(1974)	*[+coronal]이 /i/에 선행할 때는 음라우트가 거부된다	

이병근(1976)	*개재자음은 [-coronal] 또는 [+grave] 자질을 가진다.	
이승재(1980)	*[-grave]가 세 번 겹쳐 연속할 수 없다.	
김영배(1985)	*개재자음이 [+grave]이든 [-grave]이든 관계없다. *다만 [+grave] 자질의 자음이 [-grave]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동화가 잘 된다.	
최명옥(1989)	*음라우트를 가능하게 하는 개재자음은 조음시에 'i, j' 앞에서 [a high, a back]의 자질을 가진다.	이승녕(1935/1940)을 비판함. 이병근(1971)을 비판함.
신승용(1997)	*음라우트의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개재자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지하기 어렵다.	최명옥(1989)를 비판함.

이승녕(1935, 1940)에 따르면

(15) 서리, 거리, 가시, 가지, 바지, 고치, 다닌다

(15)의 어휘항목을 살펴볼 때, 음라우트 현상의 기점인 모음 '이'에 선행하는 자음은 모두 'ㄹ, ㅅ, ㅈ, ㅊ' 등 치음이라고 명시한다. 이것은 비록 '아이, 어이, 오이'형일지라도 양모음간에 개재할 자음이 치음인 경우는 음라우트를 일으키지 않음을 말한다. 왜냐하면 치음의 발음위치와 'i, j'의 발음위치가 극히 가깝기 때문이다. 이 현상이 가능한 예의 '중개자음'이 'ㄴ, ㄹ, ㄷ, ㄱ, ㅋ' 등 주로 순음, 구개음이여야 가능하다는 이상 자음이 '아, 어, 오'의 모음과 후음절 모음, 즉 이 현상의 기점인 '이' 음간에서 양모음간에 발음노력의 과대, 무리, 또는 부조화를 중화시킬 하등의 효과적 힘을 갖지 못한 까닭에 '아, 어, 오' 모음 자체의 수정을 요하게 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예외의 주요 조건인 치음의 개재는 '이'음과 발음위치가 가까우므로 '이'음의 발음보다 한결을 앞서 치음위치에 가까이 유도하므로 중화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하면 이 중개

자음이 양모음의 거리에서 오는 부조화를 이분하여 앞질러 ‘이’음의 역행적 동화력을 중화시키므로 음라우트 작용의 가능성을 상쇄시킨 것이다. 한편 방언에 보이는 순음이 개재한 예외형인 ‘사램이, 바램이’는 음라우트 이긴 하나 전술한 조건을 흔들리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장구한 시간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완진(1963)에서 개재자음에 대한 제약은 이승녕(1935/1940)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중자음이 개재되어도 음라우트는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 그들 자음 중, ‘i, n, s, c, ch’와 같은 자음이 있으면 이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벗기다’는 ‘베끼다, 비끼다’형의 예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 (16) ㄱ. 다리미, 다리, 드리다, 나리다, 노리다
 ㄴ. 대리미, 대리, 다리다, 내리다, 너리다

(16ㄱ)이 각각 (16ㄴ)으로 음라우트를 보이는 사실을 통하여 ‘ㄱ’이 개재자음이 될 경우에는 피동화주를 포함한 음절의 두음이 ‘ㄷ’이나 ‘ㄴ’이면 음라우트가 가능하다고 하여 제약조건을 더욱 정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나리[nari]→*내리, 느리다[nirida]→*너리다’와 같은 음라운트의 예외에 대한 지적은 있으나 어떠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김완진(1971)에서는

- (17) 벗긴다→베긴다, 말긴다→메긴다, 굶긴다→깡긴다

(17)에서처럼 ‘부도체(不導體) 자음’들이 형태음소의 수준에서 개재자음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음운적 실현에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음라우트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대개의 경우 자음간의 동화작용에 의하는 것인데, ‘굶긴다→깡기다’의 경우는 자음간의 자음군을 규제라는 음운규칙에 의해서 ‘ㄱ’이 제거된 결과로 본다. 이러한 사실은 음라우트와 자음동화 사이에 규칙의 적용순이 존재함을 말하는 것인데, 음라우트가 순위상

뒤진다는 것은 우연일지 모르나 역사적 발현 순서에 일치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병근(1970, 1971)에서는 공시적으로나 통시적으로나 계속적 자질(continuant feature)에 의한 제약은 지금까지 흔히 ‘ㅅ, ㅈ, ㅊ’ 및 ‘ㄴ, ㄹ’ 등과 이들을 포함하는 중자음들이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개재하는 것으로 대변되어온 것이다. 즉 이들 개재된 자음들이 공통자질로서 움라우트의 제약에 관여하는 것이 곧 계속적 자질이다. 이 자질을 동화주와 관련시켜 볼 때, 동질적인 것들의 연결을 싫어하는 조음적인 음운론적 제약의 인자가 된다. 따라서 움라우트는 불가능하다. 한편 ‘ㄴ, ㄹ’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것은 음성적으로 언급되어 온 구개음화된 변이음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 구개음화된 변이음들은 계속성을 포유함으로써 움라우트로부터 고립되는 것으로 본다(버버리(빙어리), 포리(파리), 재털이, 하리살이(하루살이) 등은 움라우트가 실현되지 않음). 그러나 이병근(1971)에서 제안하고 있는 계속적 자질의 문제점은 ‘ㅅ, ㅈ, ㅊ’이 이 자질로 묶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계속적 자질은 ‘ㄴ, ㄹ’에는 할당될 수 있어도 ‘ㅅ, ㅈ, ㅊ’에 할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움라우트 개재자음의 속성으로 이 자질은 부적절하다.

최명옥(1974)는 어휘형태소 내에서 [+coronal] 즉 /s, c, ch, n, r/이 /i/에 선행할 때 움라우트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한다. 다만 동사에서는 /i/ 앞에 /r/이 선행할 때에도 역행동화는 가능하다는 세부 조항을 말함으로써 예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병근(1976)에서 움라우트는 후설모음이 [-coronal] 또는 [+grave]의 자음을 개재시키고 후행하는 i(또는 y)에 의하여 전설모음으로 바뀌어지는 규칙이라고 언급한다. 즉 움라우트가 가능한 개재자음의 공통 속성을 [+grave]에서 찾고 있다.

이승재(1980)에서는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grave]인 자음이 개재된다는 사실을 통해 의식적으로 SPE의 [back]대신에 Jakobson의 [grave] 자질을 사용한다. 만약 ‘매디[*mödi](마디)’가 불가능한 음성형이라고 한다면 [-grave]인 음소결합이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동일한 자질이 연속되

는 결합을 피하려는 현상은 그렇게 드문 것이 아니라고 한다. /yi/나 /wu/ 등의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다. ‘피기[kögi](고기)’에서는 음라우트가 일어나더라도 [g]가 [+grave]이므로 [-grave]가 연속되지 않는다. [grave]대신에 [back] 자질을 사용하게 되면 음소결합제약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 자음뿐만 아니라 모음에 대해서도 [grave] 자질을 사용하여 기술하여야 음라우트의 음소결합제약을 합리적으로 논할 수 있기 때문에 [back] 자질 대신에 [grave] 자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grave]자질이 음라우트 개재자음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자질임을 주장하고 있다.

김영배(1985)에서 평안방언의 음라우트 실현형을 통해 동화주 ‘i/’와 피동화주인 후설모음 ‘ㄱ, ㅋ, ㆁ, ㄷ, ㄴ’ 사이에 자음의 종류에 관계없이 또는 자음의 개재없이 피동화주가 뒤따르는 동화주에 동화되어 수의적으로 전설모음 ‘ㅣ, ㅞ, ㅟ, ㅢ, ㅤ’로 바뀌는데, 이 때 자음이 개재될 경우 [+grave] 자질의 자음이 [-grave]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동화가 잘 된다고 주장한다.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개재자음의 제약을 여기는 평안방언의 예를 제시하고서 기존의 제안을 비판하는데, 제시된 예들은 다음과 같다.

- (18) 가. ㄷ-매디, 디디다, 채디다
 나. ㅌ-재티다.
 다. ㄹ-(웃)채림, 채례, 회채리, 잡디리, 개립다, 내리다, 애리다
 라. ㅅ-되선(조선)
 마. ㅈ-개지다, 골매지, 애지네
 바. ㅊ-새치하다(奢侈), 재치다, -에치(-어치)
 사. ㅈ-센네(仙女)
 오. ㄴ-깁지럼, 맨지다
 자. ㄷ-셀기

(18)의 예를 통해서 [-grave] 자질인 치음이나 경구개음 기준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 있다는 것과 아울러 (18ㅅ, ㅇ, ㅈ)과 같이 중자음도 세 가지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피동화음을 포함한 음절의 두음이 t, n이면 모음간 r음이 transichtbar하여진다고 한 김완진(1963)의 논의와 동사에 관한 한 ‘ㄹ’이 개재되어도 동화가 된다는 최명옥(1974)의 논의에 해당하는 것도 있으나 예외가 되는 것도 있다. 가령 ‘채림’은 ‘차리다→채리다’, ‘잡디리’는 ‘잡들다’란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채래; 개립다, 애리다’는 각각 명사, 형용사인 점으로 최명옥(1974)의 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최명옥(1974)에서 말하는 동사는 형용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정당한 비판이 될 수 없으나 명사에 음라우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또다른 설명이 가해져야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영배(1985)에서 평안 방언의 음라우트는 수의적 현상인데 음운론적 제약으로 기능하는 개재자음은 없다고 한다. 근거로써 평안 방언의 치음, 경구개음의 조음점은 여타 방언의 조음점보다 한 단계 앞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평안 방언의 치음과 경구개음은 ‘중자음(中子音)’에서 변자음 쪽으로 더 치우쳐서 동화주인 i 모음의 조음점과 거리가 더 멀어지는 데 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명옥(1989)의 개재자음에 대한 논의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음라우트를 불가능하게 하는 개재자음들은 [+coronal]이나 [-grave]로 묶여진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조건이 성립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개재자음이 존재한다. ‘ㄹ’이 그것이다. 서술어에 한하여 ‘ㄹ’이 개재되어도 음라우트가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coronal]이나 [-grave]는 음라우트를 불가능하게 하는 개재자음을 규정짓는 자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국어에서 ‘ㄹ’의 음가는 탄설음 ‘r’과 권설음 ‘l’ 두 가지이다. 두 개의 ‘ㄹ’이 ‘i, j’ 앞에 있으면 구개음화된 [ʃ]로 난다. 한편 [r]은 치경음에 속하고, [l]은 권설음, [ʃ]은 경구개음에 속한다. ‘ㄹ’이 개재자음이 될 경우에 그것이 [l]이나 [ʃ]로 실현되면 음라우트가 불가능한데 이 두 음이 공통으로 가지는 자질은 [+high, -back]이며, 음라우트가 가능한

[r]([-high, -back])을 배제시킨다. 그리고 [+high, -back]은 ‘ㄹ’ 이외에 음라우트를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개재자음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에서 음라우트를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개재자음들은 [+high, -back]에 의하여 하나로 묶여진다. 그런데 음소 층위에서 이 자질을 가지는 것은 경구개음(ㄷ, ㅌ, ㅊ)뿐이다. 따라서 [+high, -back]은 음라우트를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음소 층위의 자음을 규정할 수 없다. 음라우트를 불가능하게 하는 개재자음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조음시에 ‘i, j’ 앞에서 [+high, -back]의 자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는 것으로 본다.

이 점에서 <‘i, j’ 앞에서 경구개음화하느냐 하지 않느냐>하는 것으로 음라우트에 대한 음운론적 조건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조음시에 경구개음화하지 않으면서도 음라우트를 불가능하게 하는 설측 권설음 [l]를 포함시킬 수 없다. [l]이 경구개음화하지 않으면서도 음라우트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음라우트를 불가능하게 하는 다른 개재자음과 동일한 [+high, -back]의 자질을 공유하기 때문이므로 음라우트의 개재자음의 음운론적 조건은 [high, back]의 자질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음라우트를 가능하게 하는 개재자음은 조음시에 ‘i, j’ 앞에서 [a high, a back]의 자질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다고 한다.

한편 중세와 근대국어가 활용과 곡용에서 ‘i’나 ‘j’로 끝나는 어간이 ‘아, 어, 오, 우’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미 앞에서 ‘j’-첨가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며, 형태소 내부의 ‘V_jV’에서 ‘j’-첨가가 일어나는 사실을 고려하면 ‘개야미’ 등은 후설모음으로 끝나는 음절과 ‘j’로 시작하는 음절 사이에서 일어나는 ‘j’-첨가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재자음이 ‘ㄹ’일 때, 피동화주를 포함하는 음절의 두음에 음운론적 제약을 가하는 김완진(1963)의 견해대신 개재자음 ‘ㄹ’의 음성적 사실을 고려하여 음라우트의 가능 여부를 설명하려 한 이병근(1971)의 견해는 ‘매렵다, 디렵다, 끼렵다, 제렵다’ 등에서 보듯이 피동화주를 포함하는 음절의 두음이 ‘ㄷ’이나 ‘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그러나 ‘ㄹ’이 구개음화하거나 하지 않거나 언제나 [+coronal, +continuant]의 자질을 가지

며 음라우트 실현형과 비실현형에 개재하고 있는 ‘ㄹ’이 구개음화된 것인가 아닌가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승용(1997)은 중세국어 문헌에 보이는 ‘개야미←가야미, 비압←뵤압, 밋야지←뵤야지’의 경우, 최명옥(1989)에서 음라우트와 별개의 현상으로 다룬 이유는 이들 예가 나타나는 시기에 개재자음이 개재한 환경에 있는 어형들에서 음라우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즉 이 주장은 현대국어의 대부분의 방언에서 나타나는 음라우트 환경이 개재자음을 개재한 경우라는 데서 유추한 결론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화 규칙의 경우 동화력은 중간에 개재자음이 개입한 비인접 동화보다는 개재자음이 없는 인접 동화인 경우 동화력이 더 크다는 조음 음성학적인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또 다른 근거로서 이미 중세국어 시기에 개재자음이 개재한 경우에도 음라우트로 보이는 ‘새곤(←사기(刻)), 외히려(←오히려)’ 등의 예를 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신승용(1997)은 표기가 곧 언어현실이라는 다소 불합리한 믿음을 전제로 음라우트를 설명하고 있다. 설령 이 믿음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중세국어 시기의 모음체계에 ‘ㅞ, ㅟ’ 등이 단모음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진정한 비판이 될 수 없다. 백보 양보해서 음성적 층위에서 이들이 단모음화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음성적 층위에서의 변이음 관계이지 최명옥(1989)에서 논의하는 음운 현상으로서의 음라우트 규칙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요컨대 결론적으로 최명옥(1989)도 ‘ㄹ’이 구개음화된 것인가 아닌가를 명시적으로 논증한 것 같지 않다. 결국 실현형을 보고서 즉 ‘다리다→대리다; 머리→*메리, 자리→*재리’와 같이 동일한 환경에서 어떤 경우에는 음라우트가 일어나므로 구개음화되지 않은 ‘ㄹ’이고 어떤 경우에는 음라우트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구개음화된 ‘ㄹ’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하면 최명옥(1989)에서도 여전히 음라우트 실현형과 비실현형에 개재하고 있는 ‘ㄹ’이 구개음화된 것인가 아닌가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말했다고 할 수 없다. 즉 ‘ㄹ’이 개재한 동일한 환경에서

피동화주가 음라우트를 겪을 때의 ‘ㄹ’과 겪지 않을 때의 ‘ㄴ’이 어떻게 다른지, 예컨대 음라우트를 겪지 않는 ‘머리, 자리’에서 개재자음 ‘ㄹ’과 음라우트를 겪는 ‘다리-, 어럽-’에서의 개재자음 ‘ㄹ’이 다른 ‘ㄴ’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실증적인 검증 절차를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음라우트의 동화주, 피동화주 그리고 개재자음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다.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화주에 대한 논의는 이승녕(1935, 1940)에서 ‘i, j’만이 동화주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한 이래로, 김완진(1963)에서는 순정의 ‘i’어야 한다. 최명옥(1980)에서 동화주가 되지 못하는 ‘이’를 기저형에 ‘의’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한편 이승재(1980), 도수희(1981)에서는 ‘i, j’이 외의 모음도 동화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도수희(1981)에서는 순행동화에 의한 음라우트의 예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최명옥(1989)에서는 그래도 역시 음라우트는 동화주가 ‘i, j’일 때만 가능하여 역행동화에 의한 음라우트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 음라우트의 영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음라우트와 유사한 어형들은 사실 다른 기제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피동화주에 대한 논의는 먼저 이승녕(1935, 1940)에서 후설모음 중 ‘아, 어, 오’만이 피동화주가 될 수 있다고 한 이래, 정인승(1937)에서 모든 후설모음뿐만 아니라 ‘j’가 선행하는 모든 후설모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완진(1963)에 오면 정인승(1937)과 대체로 일치하나 피동화주가 ‘u, i’일 때는 음라우트가 약화됨을 지적하고 한편 피동화주를 포함한 음절의 두음이 ‘ㄷ, ㄴ’이면 모음간 ‘ㄹ’음이 제약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피동화주에 대한 제약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병근(1969), 최명옥(1980), 서정목(1981)은 음라우트에 대한 운소적 제약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체로

피동화주가 포함된 음절이 장음이거나 저조이면 음라우트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백두현(1982)에서는 이상의 운소적 제약에 대한 예외 어형을 지적하고서 운소적 제약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피동화주에 대한 운소적 논의를 제외하면 이후의 논의들은 대체로 피동화주는 모든 후설모음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모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재자음에 대한 논의는 이승녕(1935, 1940)에서 개재자음이 없는 ‘아-이, 어-이, 오-이’ 모음 연쇄에서 발견되는 선행 음절의 음라우트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음라우트를 방해하는 개재자음은 치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치음 이외에 ‘ㅂ, ㅃ, ㅍ, ㅑ, ㅓ’ 등 주로 순음, 구개음은 음라우트를 가능하게 하는 개재자음이라고 한다. 이 점은 비록 [-coronal] 또는 [+grave]라는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변자음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완진(1963)에서 모음간 ‘ㅅ, ㄹ, ㅈ, ㅊ, ㅍ, ㄴ’ 등과 이 음운들을 포함하는 중자음은 음라우트를 방해하나 피동화음을 포함한 음절의 두음이 ‘ㄷ, ㄴ’이면 개재자음 ‘ㄹ’이 음라우트를 방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음라우트의 개재자음에 대한 세부적인 속성을 처음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병근(1970, 1971)에서는 음라우트의 음운론적 제약조건으로 계속적 자질(continuant feature)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ㅅ, ㅈ, ㅊ’이 이 자질로 묶일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명옥(1974)에서 음라우트를 거부하는 자음의 음운자질은 [+coronal]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병근(1976)에서는 음라우트가 가능한 개재자음의 음운자질로 [-coronal] 또는 [+grave] 자질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배(1985)에서는 개재자음이 [+grave]이든 [-grave]이든 관계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최명옥(1989)에서는 음라우트의 예외를 가져오는 ‘ㄹ’ 자음을 [-coronal] 또는 [+grave]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개재자음은 조음시에 ‘i, j’ 앞에서 [a high, a back]의 자질을 가지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명옥(1989)에서도 여전히 음라우트 실현형과 비실현형에 개재하고 있는 ‘ㄹ’이 구개음화된 것인가 아닌가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말했다고 할 수 없다. 즉 ‘ㄹ’이 개재한 동일한

환경에서 피동화주가 음라우트를 겪을 때의 ‘ㄹ’과 겪지 않을 때의 ‘ㄹ’이 어떻게 다른지, 예컨대 음라우트를 겪지 않는 ‘머리, 자리’에서 개재자음 ‘ㄹ’과 음라우트를 겪는 ‘다리-, 어럽-’에서의 개재자음 ‘ㄹ’이 다른 ‘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실제로 검증하고 있지는 않다.

음라우트에 대한 이상의 연구사를 통해서 피동화주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나 동화주에 대한 견해는 아직도 분분하다. 한편 개재자음에 대한 견해는 예외형인 ‘ㄹ’ 개재 음라우트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확실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참고 문헌

- 기세관(1983), “전남 북서부 방언의 움라우트 현상”, 《국어국문학》 90, 국어국문학회.
- 김수곤(1978), “현대국어의 움라우트 현상”, 《국어학》 6, 국어학회.
- 김영배(1985), “i 모음역행동화와 그 개재자음”, 《한국문화연구》 2.
- 김영배(1987), “i 역행동화의 방사 중심지에 대한 한 생각”, 《한국어학과 알타이어학》, 박은용박사 회갑기념논총, 효성여대출판부.
- 김완진(1963), “국어모음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4, 진단학회.
- 김완진(1971), “음운현상과 형태론적 제약”, 《학술원논문집》 10.
- 도수희(1981), “충남방언의 움라우트 현상”, 《방언》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백두현(1982), “성조와 움라우트: 성주·금릉지역어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16, 경북대.
- 서정목(1981), “경남 진해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 《방언》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신승용(1997), “하향성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와 움라우트와의 상관성”, 《서강어문》 13, 서강어문학회.
- 안병희(1985), “‘別行錄節要諺解’에 대하여”, 《김일근박사회갑기념 어문학논총》.
- 이기문(1977),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 이병근(1969), “경기지역어의 형태음운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6, 국어국문학회.
- 이병근(1970), “19세기 후기 국어의 음운체계”, 《학술원논문집》 9.
- 이병근(1971), “운봉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 《김형규박사 송수기념논총》, 일조각.
- 이병근(1976), “19세기 국어의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국어국문학》 72-3, 국어국문학회.
- 이승녕(1935), Umlaut 현상을 통하여 본 모음 ‘·’의 음가고”, 신흥 8.
- 이승녕(1940), “·’ 음고”, 《진단학보》 12, 진단학회.
- 이승재(1980), “구례지역어의 음운체계”, 국어연구 45,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정인승(1937), “i의 역행동화 문제: 그 원리와 처리방법”, 《한글》 5-1.
- 최명옥(1974), “경남 삼천포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32,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최명옥(1980), “경북월성방언의 음운변화에 대하여”, 《신라가야문화》 11, 영남대.
- 최명옥(1988), “국어 Umlaut의 연구사적 검토:공시성과 통시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단학회》 65, 진단학회.
- 최명옥(1989), “국어 움라우트의 연구사적 고찰”, 《주시경학보》 3, 탑출판사.
- 최전승(1978), “국어의 i-umlaut 현상의 통시적 고찰”, 《국어문학》 19, 전북대.
- 최전승(1989), “국어 i-umlaut 현상의 기원과 전파의 방향”, 《한국언어문학》 27.
- 최전승(1990), “움라우트”,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한영균(1991), “움라우트 음운사적 해석에 대하여”, 《주시경학보》 8, 탑출판사.